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14(금) ~ 2025.2.20(목)

제공일시 2025 2 28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14(금) ~ 2025.2.20(목)

제공일시 2025 2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車관세 25%’ 카드로 협박하더니... 트럼프 “미국에서 공장 세우면 세금 없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 수준이며, 반도체·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아마 4월 2일에 이야기하겠지만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함
- 이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관한 질문에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임

[\(매일경제 2025.2.19\)](#)

2. 日, 2040년 에너지 기본계획 각의 결정... ‘원전 최대 활용’ 명시

- 일본 정부가 기존의 ‘원전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수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함
- 18일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정함
- 개정안에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 온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는 기존 표현이 삭제되고, 원전 재건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뉴시스 2025.2.18\)](#)

3. 美 트럼프, SAF 대출 허가에... 정유사들 투자 긍정 기류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생산 공장 대출 지원을 승인하며 국내 정유사들의 SAF 사업에도 청신호가 들어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연료 전환 대신 반(反)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SAF 사업 위축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우선은 과격한 사업 축소에는 나서지 않은 것임
-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몬태나주 SAF 생산공장 대출금 지급을 승인함. 이는 국내 SAF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AF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전 세계적 기류와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임

[\(이데일리 2025.2.17\)](#)

국내 정책

1.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 제작부터 폐기까지 관리

-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 판매 이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함
- 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함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힘
-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함

[\(연합뉴스 2025.2.16\)](#)

2. CBAM 中 小 企 부 담 줄 어 든 다 ... EU 수 출 1 억 미 만 제 외 추 진

- 정부가 연간 1억원 미만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
- 영세 중소기업 환경 규제 부담을 줄이고 CBAM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EU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골자는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CBAM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임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CBAM 적용이 불가피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2.16\)](#)

3. 환경부에 국제협력관 신설... “국제 기후환경협상 역할 강화”

- 환경부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관이 신설됨. 국제 기후·환경협상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국제환경협약팀·국제개발협력팀이 설치될 예정임
-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게 됨.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함.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함

[\(세계일보 2025.2.18\)](#)

글로벌 기업

1. 인도 국영에너지기업 NTPC, SMR 투자 계획... 30GW, 89조원 규모

- 인도 최대 전력기업이자 국영 공기업인 NTPC가 향후 20년간 30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함
- 이는 기존 예상치의 3배 수준이며, 총 620억달러(약 8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소식통에 따르면, NTPC는 현재 최소 50GW의 용량 설치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용량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짐

[\(임팩트온 2025.2.19\)](#)

2. 中 이브에너지, 해외 사업 착착... 첫 현지 공장 가동

- CNEV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가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케다시 쿨림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 공장은 연간 6억8천만개의 전동 공구 및 전기차용 높이 70mm, 지름 21mm(2170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음
- 이브에너지는 말레이시아에 생산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배터리를 판매함에 따라 시장 입지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지디넷코리아 2025.2.18\)](#)

3. 'LG화학 파트너' 美 지보, 佛 악센스와 지속가능항공유 개발 상용화 추진

- 미국 친환경 연료전문업체 '지보(Gevo)'와 프랑스 정유회사 '악센스(Axens)'가 지속가능항공유(SAF)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음. 지보는 12일(현지시간) 악센스와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양사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접목해 비용 경쟁력이 높은 고성능 지속가능항공유를 선보인다는 목표임

[\(더구루 2025.2.13\)](#)

4. 일본, '반고체 배터리' 주목... 나고야 소재 스타트업, 도입 박차

- 일본 나고야 소재 엔지니어링 스타트업 아자파(AZAPA)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반고체 전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제안할 계획임
- 17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자파는 반고체 전지와 자사의 제어 시스템을 조합해 연내 자동차업체들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음
- 아자파가 출자한 중국 배터리 제조사 액시바(Axxiba)는 올해 6월부터 반고체 배터리를 생산함. 아자파는 이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이투데이 2025.2.17\)](#)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벵쿨루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 추진

-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 벵쿨루 주 무코무코 지역에서 안정적 원료 공급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
-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현지언론 라다르무코무코(RMONLINE.ID)는 삼성물산이 무코무코 지역 내 팜오일 공장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삼성물산은 최근 서부 자바 쥘라마야에서 1.7GW 규모의 자와 1호 증기 가스 발전소를 완공함
-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로, 이러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 경험을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접목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2.17\)](#)

2. LG엔솔, 미국서 GM 대신 도요타 배터리 만든다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9일 보도함. 도요타가 공급받는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637억원)로 추산됨
-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 배터리 공장을 완전히 인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다른 공장 주문을 랜싱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함

[\(한국경제TV 2025.2.19\)](#)

3. 현대건설, 사우디 태양 태양광 연계 송전로 건설 수주

-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연이어 수주함.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메디나와 젓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8900만달러(약 5125억원) 규모임
-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짐.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또한 턴키 방식으로 수주함

[\(그린포스트코리아 2025.2.17\)](#)

4. 탐머터리얼, 유럽 배터리사와 1.2兆 규모 공급계약

- 2차전지 토털솔루션 기업 탐머터리얼은 유럽의 2차전지 기업 프라임배터리테크놀로지(Prime Batteries Technology)와 향후 10년간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양극재 및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힘
- 이번 계약은 203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으로, 매년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 규모의 소재를 공급함. 탐머터리얼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품질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할 예정임

[\(이데일리 2025.2.1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2.14(금) ~ 2025.2.20(목)

제공일시 2025 2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청정산업딜 보조금, 원자력 언급 전혀 없어… 재생에너지 집중 전망

-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핵심사항인 보조금 규정 초안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제외됐다고 현지 미디어 유랙티브는 14일(현지시각)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6일 청정산업딜을 발표할 예정임
- EU는 2023년 3월 채택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마련 중인
- TCT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관련 기준임. EU가 최근 채택한 경쟁력 나침반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보조금 체계는 청정산업딜을 발표한 이후인 2025년 2분기 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 새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도 회원국들이 청정산업딜과 관련된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
-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바이오 연료 △재생 가능 연료 생산 △전기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과 같은 성숙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각) 전했다. 회원국들은 보조금, 세제 혜택,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유랙티브가 입수한 집행위의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지원의 대상 목록에 원자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정책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12일(현지시각) “유럽의 새로운 전략에서 원자력은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됨
-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노르망디의 플라망빌 원전을 방문해 “EU 회원국의 다수가 원자력을 탈탄소화 전략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원자력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는 미국의 정치전문 미디어인 폴리τικο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저탄소이고 유럽의 주권과 부합하며 발전량이 많아 전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지지국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도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프랑스 최대 경제인 연합회(Medef)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원자력 부문에 대한 EU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수소 에너지 생산에서도 원자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임. 유랙티브는 새로운 규정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에 대한 지원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EU 회원국들은 또한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린수소만 사용하거나, 저탄소 수소를 사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그린수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음. 이 의무 비율은 각 회원국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연동될 것이라고 유랙티브는 설명했다

(임팩트온 2025.2.18)